

인생 대화 공식	
06차시	아차 하는 사이, 끈대가 되기 쉬운 말

〈1〉 끈대와 선배의 말투 차이

[상황 재연]

저, 끈대인가요?

저는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쌓이고 선배가 되자 신경쓰이는 것이 생겼어요. 바로 ‘내가 끈대인가?’하는 생각입니다.

낮은 연차일 때 소위 말하는 끈대 어른들을 보며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후배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되자 조심스러워진 겁니다.

‘이 말을 하면 끈대가 아닐까?’ 고민이 되다 보니, 한 번은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 차장, 너무 리더십이 없는거 아니야? 후배들한테 한 소리도 좀 하고 그래~”

저도 헛갈립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끈대가 아니고, 어디까지 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끈대가 되지 않고 할 말을 하는 법은 없을까요?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 강요 VS 권유

- 누구나 끈대가 될 수 있다. 나이는 상대적이고, 방금 막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도 누군가의 선배, 끈대가 될 수 있기 때문.
- ‘젊은 끈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끈대는 나이보단 태도의 문제.
-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무려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 이런 말이 쓰여있었다.
- 요즘 애들과 기성 세대의 대립과 갈등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천년 전에도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 이렇게 자신보다 어린 세대를 다른 종족으로 보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다.
- ‘끈대’라는 말이 최근 들어 좀 남용되는 경향도 있다.
- 그러다보니 끈대 소리를 들을까봐 후배를 방임하거나 지나치게 조심하는 경우도 보인다.
- 아는 걸 가르쳐주는 선배가 없다면 후배들이 제대로 일을 배울 수 없다. 따라서 기준을 세워 할 말은 하는 것이 중요.
- 끈대와 선배를 가르는 말투 차이
 - 1) 강요인지, 권유인지
-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아는 것이 많아지고,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 여기서 끈대와 선배를 가르는 마음가짐은 바로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 나이는 어리지만 후배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가르쳐주는 행위’로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들린다.
- 상대방에게 ‘강요’의 말투를 쓰는지 아니면 ‘권유’를 하는지에서 크게 갈린다.
-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소위 ‘끈대’는 자기방식을 강요하는 말투를 쓴다.

ex) “내가 아는게 최고야. 그러니 너도 해.”

“~해라”처럼 명령조의 말투 사용.

- 같은 말이어도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 같은 말도, 곧대로 느껴지는 말은 이런식이다.
“민트 초코가 최고야. 그러니 너도 먹어”
- 강요를 권유로 바꾸어 보자.
“민트 초코 맛있지. 한 번 먹어보면 어때?”
- 곧대와 다르게 선배는 자신이 아는 것, 겪었던 좋은 방법들을 권유한다. 공유의 차원인 것이다.
- 권유의 표현으로 말을 하니 상대도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 혹은 생각 공유가 수월해진다.
- 강요가 아닌 권유의 표현 “이런게 있더라. 해보면 어떨까?”로 압축할 수 있다.
- 비록 마음속은 ~해!!! 라고 외치고 싶지만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권유의 말투를 써 보는 것, 곧대가 되지 않는 시작이다.
- 다음의 두 말투를 비교해보자
“이거 1번 먼저 하고 2번은 나중에 해요.”
VS
“이거 1번 먼저 하고 2번은 나중에 해보면 어때요?”
- 2번은 나중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지만 그걸 상대에게 강요하는지, 권유하는지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지 아닌지가 다르게 느껴진다.
-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것
- 특히 바쁘게 돌아가는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존중해주려는 표현을 들으면 힘들어도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
- 일을 가르쳐줄때도, 이 방법만이 절대적이야! 너는 틀렸어! 가 아닌, ‘이런 방법이 나는 좋더라. 한번 가르쳐줄테니 적용해봐. 정답은 아니야. 너만의 방법을 찾아도 돼.’라는 말들에 더 마음이 열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배우고 싶어진다.

[2] 단정 VS 가정

- 융통성이 없고 자신만 옳다고 우겨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곧대로 느껴지는 모습 중 하나이다.
- 곧대 : 영국 BBC의 보도, 한국어 ‘곧대’란,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이다.
- 역곧대 : 역곧대는 꼭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과오 등을 알려주는 상대방을 곧대라고 지칭하고 소통을 아예 차단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
- 이를 보면 곧대와 역곧대는 사실 나이의 문제라기 보다는 수용의 문제이다.
- 타인에게 귀를 열었는지,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 함께 일하기 어려운 곧대와 역곧대의 공통점은 단정적인 태도와 말투이다.
- ‘상대는 틀리고 내가 맞아.’ 이걸 생각만해서 수용하지 않는 역곧대, “이건 이거지. 이건 이거란다” 단정해버리고 상대를 가르치는 곧대의 태도처럼.
-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분야나 정말 가르쳐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길, 내가 했던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고 단정 짓는 말투는 선배가 아닌 곧대로 느껴지는 대표적인 말투이다.
- “이건~지. 이건~란다. 이건 ~잖아.” 대표적인 단정 짓는 말투.
- 나는 옳다. 틀릴 수 없다는 마음이 가득하면, 소위 ‘독불장군’ 앞뒤가 짹짹한 어른이 될 수 있다.
- 그럼 이렇게 앞뒤가 막힌 소통이 어려운 어른이 아닌, 인생의 선배, 일적인 선배의 말투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정’의 말을 사용해보자.
- “이건 너무 속도가 빠르지.”, “이건 빠른거란다.”
이런 ‘단정’ 대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의 말투를 입히면, 듣는 사람이 덜 민망하고, 부드럽게 들린다.

- 대표적인 가정의 말투로는 “~수 있다.”가 있다.

ex) “이건 너무 속도가 빠르지” -> “이건 속도가 좀 빠르게 느껴질 수 있어.”

속도가 빠르다 라는 메시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존중’이 느껴진다.

ex) “이건 속도가 좀 빠른편 인가?”라는 식으로 가정을 하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다.

- 주말까지 야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수량을 체크했지만 부족한 업무 인력으로 인해 속도를 내느라 실수가 자주 생기는 상황, 어떤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가?

“그렇게 자주 실수하는 건 꼼꼼하지 못하단 거다.”

VS

“그렇게 자주 실수하는 건 꼼꼼하지 못해서일 수 있어요”

- 먼저 원인을 파악해 알려주면 좋겠지만 상사도 사람이기에, 미처 당신의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다.
- 이 때, 후자의 상사에게 조금 더 상황을 설명하고 싶어진다.
- 끈대가 되지 않는다는 건 후배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후배도 그걸 느낀다.
- 만약 그럼에도 후배가 수용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그건 요즘 애들이라서 그런것도 아니고 내가 끈대라서 그런것도 아닌 그 사람의 문제일 것.

[3] 라떼는 말이야 VS 요즘엔 어때?

-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비하하는 건 끈대가 되는 지름길이다.
- 과거도 좋았고 현재도 좋다는 식이 아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만이 전부라고 믿는 태도. 어찌보면 ‘끈대’는 ‘우물 안 개구리’의 어른 버전으로도 볼 수 있다.
-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건 끈대가 되기 딱 좋은 조건이다. 세상은 변하는데 과거에 갇혀서 계속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하게 되니 말이다.
-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나온 이유도 이런 스타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 그런데 단순 추억을 공유하거나, 경험을 통해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다.
이럴 때 내가 끈대인가 싶어 과거의 이야기를 못하고 입을 꼭 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 그럴 땐 다음의 화법을 사용하자. “라떼는 말이야~” 대신 “라떼는 이랬는데 요즘엔 어때?”
- 단순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리드를 한 뒤 후배에게 최신 트렌드나 요즘 후배의 경험을 묻는 것.
- 이렇게 단순 공유용으로 리드 멘트를 하면 후배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다.
- 레트로가 유행하듯, 요즘 사람들도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무작정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 문제는 과거 이야기를 ‘어떻게’하느냐가 중요하다.

ex) “라떼는 밤 10시 근무는 기본이었는데. 요즘엔 너무 다들 칼퇴근하고 세상 편해졌어?”

이렇게 말하면 전형적인 ‘끈대’소리를 들을 수 있다.

- 과거의 문화가 그랬더라도, 요즘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대신 ‘라떼는 말이야~’가 튀어나오려 한다면 “요즘엔 어때?”로 축을 틀어보자.

ex) “카..라떼는 말이야. 입 심심할 때 쏘디기 알아? 쏘디기. 그거 불에 구워서 먹으면 말이야. 엄청 맛있었어.”

-> “요즘엔 입 심심할 때, 어떤 과자 먹어? 요즘 SNS에서 핫한 간식 있다던데 혹시 알아?”

- 이렇게 되면 후배들은 잘 모르는 쏘디기 이야기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 후배들에게 자꾸 그들이 모르는 과거의 이야기, 라떼의 이야기를 하며 ‘나만 아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요즘엔 어떤지를 물으며 후배들이 아는 것을 말하게 하자.
- 누구나 자신이 잘 아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있다. 때문에 선배를 어려워 하는 후배에게 자신이 잘 아는 것을 말하게 하면 분위기가 풀어진다.
- 나보다 요즘 트렌드를 잘 아는 후배들에게 정보도 얻고, 후배들도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며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 일석이조.
- 나도 모르게 ‘라떼는 말이야’가 튀어나왔다면, 바로 요즘엔 어때?로 상대방에게 트렌드를 물어보며 화제를 전환하자.

(2) 함께 일하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화법

[상황 재연]

후임들이 저를 싫어하는 느낌입니다. 이전엔 잘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팀장이다 보니 사회 생활을 하려면 다 맞춰주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TF팀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함께할 팀원을 받았는데요. 아무도 저와 함께 하고 싶다고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옆 팀장은 인기가 많아보여요. 유독 후배들과도 잘 지내고요. 특히 부러운건 회의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고 후배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고민을 동료 팀장에게 털어 놓으니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하하 그렇게 평소에 좀 후배들 아이디어도 좀 챙겨주고, 인정해주지 그랬어요!”

제가 후배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저는 그저 후배들이 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의견을 말했구요. 회의때 별로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냥 다 별로라고 솔직히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쯤 되니 제 말에 문제가 있었나 싶습니다. 후배의 의욕을 떨어트리거나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을까요? 일할 때 상사가 특히 주의해야 할 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갈취형

- 일을 할 때, 유독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트리고! 기운을 뺏어가는 말투가 있다.
-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본인만 모르는 비호감 화법.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한두마디를 듣는 것. 혹은 이렇게 후배들이 모두 자신을 피하는 것처럼 일종의 ‘시그널’이 있다.
- 모두가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놓고 이야기해주는 경우는 많이 없다.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그렇다.
- 함께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말투로 갈취형이 있다.
- 갈취형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 것이 되는 기적의 화법이다.
-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을 하면 그 말을 반복하거나 첨언을 해서, 자신이 꺼낸 말로 결론을 맺는다.

ex) “저희 회의 방식을 좀 재미있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릴레이로 지목해서 결국 모두 다 이야기하는 방식으로요!”

“!!릴레이 방식으로 여기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회의하는거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참여율이 높아지고 회의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만하지 않을수 있고요.”
 “네! 릴레이가 정착되면 모두가 말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회의 준비도 더 하게 되고 집중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말 자르며) 내가 말해야 하니까 회의 내용도 잘 듣고, 준비도 하는 효과가 있는거죠!
 릴레이 방식! 어때요?”

- 회의 방식에 대해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다시 반복해 말하는 식.
 상대의 말을 가로 막으며 결국 똑같은 말을 하며 자신이 한 말처럼, 결론을 맺는다.
-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의 말을 긍정하는 표현이나 첨언이 아닌, 정말 자신이 한 말처럼 이어가는 경우이다.
- 특히 회의가 길어질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순간들에 상사가 자꾸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반복하는 말투를 사용한다면, 아이디어를 뺏기는 느낌으로 인해 좋은 의견을 말하기 싫어질 수 있다.

ex) “유튜브 채널명 말이에요. 히렌최님 이름을 살려서 채널 대신 최널을 쓰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히렌최니까! 이름 살려서 히렌최널? 오? 좋지 않아요 히렌최널”
 “네^^ (내가 낸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우째 이상하다)”

- 만약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고 수긍하려는 표현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면, 말을 덧붙이시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대해 인정하거나 긍정하는 표현을 앞이나 뒤에 덧붙이는 것.

ex) “유튜브 채널명 말이에요. 히렌최님 이름을 살려서 채널 대신 최널을 쓰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대리님! 히렌최니까! 이름 살려서 히렌최널?”

- 반대로, 이렇게 갈취형과 일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입장이라면, 내 의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리마인드 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ex) “네, 그래서 제가 요런식으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라고 확인하는 말을 하고 나면 조금 덜 억울하다.

- 때로는 표현이 부족해서, 의도하지 않은 갈취형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상습적 갈취형도 만날 수 있다.
- 말투 뿐만 아니라 내가 낸 아이디어, 성과를 자신의 것처럼 가로채는 사람들, 고의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생각했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
-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을 통해 남겨두는 것. 나중에 증거가 되어 억울한 일을 방지할 수 있다.

[2] 퀴즈형

- 대놓고 마음 상하게 하는 갈취형과 달리, 퀴즈형 말투는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누군가 알아봐주길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말투. 스무고개, 퀴즈처럼 듣는 사람이 알아서 맞춰야 한다.
- 일을 할 때, 특히 상사가 이런 말투를 쓴다면 후배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해진다.

ex) 상사가 카드를 주면서 편의점에서 팀원들이 먹을 간식을 좀 사오라는 상황.
 “어떤 간식을 사올까요?” 하고 물어봤다. 아무거나 니가 먹고 싶은거 위주로 예산에 맞춰 사오라고 했다.
 최선을 다해서 골라오니, 선배가 이런 말을 했다.
 “히렌이 센스가 참 없네. 오는 길에 봉어빵이나 떡볶이 같은거 좀 사오면 참 좋았을텐데.”

- 상대의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갈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선배의 입장이라면, 원하는 욕구가 확실할수록 후배에게 깔끔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 낫다.
-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괜히 미안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부탁을 빙빙 돌려 말하는 경우도 있다.
- “아 오늘 회의가 너무 많네,, 자료 취합할 시간이 도무지 안나네..”
이렇게 상사가 말을 한다면, 후배 입장에선 눈치가 보인다.
- 그래서 자료 취합을 대신 해 달라는건가? 아니면 그냥 푸념인가 고민이 많아진다.
- 스무고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물어보기도 애매할 때가 많다.
- 차라리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업무적으로 편하다.
- 특히 일 적인 요청은,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
- 내가 이런 화법을 자주 사용하곤 한다면 꼭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자.

[3] 모두까기인형

- 모두까기 인형은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사람들이 낸 의견에 모두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며 그렇다고 딱히 대안도 없는 말투이다.
- 창의성이 중요한 업무, 회의에서는 이런 모두까기 인형 화법이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

ex) “이거 어때요? 1번을 먼저하고 2번을 하는거죠!”

“흠,, 근데 그거는 이러한 이유에서 좀 별론데요”

“아니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거죠”

“근데 보완이 된다 해도, 사람들이 이걸 볼까요?”

“^^ 그럼 이건 어때요? 요즘 트렌디한 방법이라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건 온라인 한정이고, 현실에선 어떨지 모르죠.”

- 물론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더 좋은 의견을 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대안이 없이 누가 말해도 다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부정 베이스의 화법을 갖고 있다면 함께 일하는 팀원들은 크게 두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 의욕 상실

2. 무조건 팀장 말이 맞다고 해준다.

-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모두까기 인형이니, 새로운 의견을 낼 의욕이 사라진다.
- 결정권자가 상사라면 어차피 내 말을 부정하니, 그냥 팀장 말이 맞다고 하고 상황을 넘기게 된다.
- 만약 팀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모두 좋다고 할 경우 혹시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자.